건설근로자공제회

보 도 자 료

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11. 26.(금) 조간 *인터넷 2021. 11. 25.(목) 15:30 이후 / 총 2쪽		
담당부서	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관리팀	팀 장 박수훈 대 리 김용유	02-519-2131 02-519-2133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, https://www.cw.or.kr,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건설근로자공제회-하나은행-삼성엔지니어링 「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」 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

-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 -

□ 건설근로자공제회(이사장 송인회, 이하 '공제회'), 하나은행(은행장 박성호), 삼성엔지니어링(대표 최성안)은 25일 15:3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「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」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, 전자카드 현장발급 캠페인을 실시했다.

□ 공제회와 하나은행, 삼성엔지니어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△ 전자카드 현장 발급 지원 △ 전자카드제 홍보·교육 △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.

- 또한 근로환경 특성상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가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, 현장에 '움직이는 하나은행'을 배치하고 하나은행 직원이 방문하여 전자카드 현장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.

□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공장 건설공사 현장은 약 1만여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으로, 금번 캠페인을 통해 원활한 전자카드 발급과 건설근로자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한편 시행 1년을 맞이한 「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」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, 지난달 말 기준 총 737개소 현장이 의무적으로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

- '22년 7월부터는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발주 공사 50억원 이상, 민간 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.

□ 송인회 이사장은 "금번 캠페인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과 사용 의무에 대한 인식이 현장 내 정착되고, 건설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"라며 "앞으로도 하나은행과 삼성엔지니어링과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여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"라고 밝혔다.

□ 이에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"전자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으로서 건설근로자가 편리하게 은행과 만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것"이라며 "건설근로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적극적으로 건설근로자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"라고 화답하였다.

별첨 : 합동캠페인 행사 장면 1부(행사 종료 후 별도 송부). 끝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관리팀 김용유 대리(☎02-519-2133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